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음 2월 5일) 제17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문화도시 법적 지정 선제적 대응 필요

▶ 문체부 '지역문화진흥법' 따라  
전북연구원, 시군 전략 제안

“문화도시로 알려진 전주  
문화특화지역 선정된  
군산·익산·남원 등  
법적 지정 절차 밟아야

도, 시군 추진 문화도시전략  
광역 전략으로 확대해야  
기존 계획 수정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빠르면 올해부터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  
도시 법적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  
구되고 있다.

도시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  
나, 법률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  
법법'에 의한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특별법에 의한 지정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  
화도시 법적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  
다.

특히 문체부는 법적 지정 시행 이후  
매년 4~5개 도시를 지정(최대 50개  
내외 지정)해 5년 동안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어 법적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문화도시 법적 지정  
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체부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도  
시 법적 지정 방안을 소개하고, 전북  
도와 문화도시 지정에 희망하는 시  
군의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역  
문화진흥법'에서 규정된 문화도시 지  
정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역도를 제외한 광역시  
와 22개 시·군·구이나,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은 시·군·구로 한정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세길 연구원은 "문화도시로 알  
고 있는 전주시,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된 남원시, 군산시, 익산시 역시  
동일하게 법적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특화지역사업은 문화도시의 예  
비단계 성격이기 때문에 새롭게 법적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주 역시  
법적 지정에 따른 국가예산을 지원받  
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장 연구위원의 설명이  
다.

다만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사업이  
추진된 전주시와 문화특화지역에 선  
정돼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를 우선  
적으로 고려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  
다. 즉 새롭게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은 예비단계 성격의  
문화특화지역에 선정되는 것이 유리  
하다.

한편 이슈브리핑 '문화도시 법적 지  
정을 준비하자'는 법적 지정과 관련  
한 대응전략을 전북도, 전주시, 남  
원·군산·익산, 신규 추진 시군으로  
구분해 제안했다.

먼저 전북도에는 기존에 시군에서  
추진하던 문화도시전략을 광역 전략  
으로 확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2면)

현재 전북도 시군 중에서 지역거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에 선정된 지  
역이 4곳이며, 새롭게 추진하려는 지  
역이 더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 단위에서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  
려는 관계자의 역량강화 사업과 체계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지역거점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법적 지정이 상대적으로 수  
월하나, 기존 문화도시 계획을 새로  
운 문화도시 추진전략에 맞춰 수정  
하거나 국제 수준의 문화도시를 목  
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특화지역인 남원시·군산시·  
익산시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에 부  
합하도록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  
해야 하며,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  
업(도시문화의 생태계 구축에 중점  
을 둔 사업)을 선정해 실행해야 한  
다.

장 연구위원은 "새롭게 추진하려는  
지역은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공  
론화와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  
다. /인재용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장군수,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여행관련 업체 및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 팔 걷는다

전북도가 '한국체험 1번지, 전북도'라는 비전을 담아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2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문화관광체육부,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언론사,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외국인 문화 서포터즈단, SNS 관광 기자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의 수려한 자연 환경과 유구한 문화유산 등 한국문화

승 지사 "전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시스템 마련"

정세균 국회의장 "전북의 매력 널리 알릴 것"

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관광의 땅"이라며 "전북의 한스타일 관광 자원 등을 바탕으로 전북도가 한국관광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며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전북투어패스 발매 등 전북관광의 폭발적 성장의 기회는 물론 전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시스템도 이미 마련했다"며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형 국제행사나 좋은 정책들, 200만 전북도민이 함께 참여해 35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일부협약식, 전담여행사 지정, 관광인의 다짐 및 전북방문의 해 선포 세레모니,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이날 국내외 여행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해 전북도는 14개 시·군, 관광업계 등과 함께 트래블마트를 개최, 현장에서 즉석으로 상품 홍보 판매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관광객 모객활동을 펼쳤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 스포츠 관광 활성화, 종화권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맞춤형 수화여행 프로그램 유치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을 갖고 5대 분야, 30개 실행과제를 추진해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 군산 육계농가서 AI 발생

AI정지역을 유지해오던 군산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해 군산시 등 관계기관이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일찍이 도계장 출하를 앞두고 육계 시료를 채취해 실시한 검사결과 28일 고병원성 조류독감인 H5형이 검출돼 AI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AI는 폐사 등의 증상은 없지만, 지난달 5일 입식해 오는 4일 출하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군산=문정근 기자

### 도, 3·1절 기념행사 거행

전북도는 제98주년 3.1절 기념식을 1일 오전 도청 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황현 도의회 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김경주 제35사단장을 비롯한 전북도 주요기관장과 보훈단체장 외에 도민과 학생,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3.1절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도내 유일한 생존 독립애국지사인 이석규 애국지사님에 대한 소개와 지사 기념사, 기념공연 '유관순 열사

### 송천동 독립운동추념탑서 참배 행사도

가, '외침의 기억'이 이어졌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만세삼창과 3.1절 노래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이밖에도 식후 행사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밀정'을 상영해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다.

이날 3.1절에는 도내 10개 시군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20개의 기념행사가 열렸다. <관련기사 8면>  
한편, 제98주년 3.1절 기념 독립운동추념탑 참배 행사도 1일 송천동 소재 전북도 독립운동추념탑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등 기관 단체장과 시·도의원, 이강안 전북도광복회회장 및 광복회원, 유족,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 추념탑 참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치신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3.1 운동의 정신을 함께 되새겼다. /인재용 기자·김영재 기자

3th 기념행사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개점 3주년 행사를 진행 합니다.

▶추첨일시 : 2017/3/24(금), 오후 2시, 하나로마트 주차장

▶응모기간 : 2017/3/1(수) ~ 3/23(목), 23일간

당일 3만원 이상 구매시 응모권(최대 10장)을 드립니다!

이제 편리하게 쇼핑하세요~! 무료배달 서비스 안내!

▶배달조건: 3만원 이상(전날) 5만원 이상(전날) 전 지역

▶결제방법: 현금/카드 결제 가능

▶배달신청: ☎ 063-433-1022

전주시내 시·군·구별 배송 및 규격을 제한하지 않고, 상품 접수시 직원들과 상의하시면 필요한 시간이 배달해드립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진부로 1150

경품+사은 대축제

▶행사기간: 2017/3/1(수) ~ 3/14(화), 14일간

1등 3500명 당첨자 1명

2등 100명

3등 300명

4등 1000명

5등 3000명

2017년 신형 기아자동차 모닝(오토)

삼성냉동고

당일 3만원 이상 구매시 응모권(최대 10장)을 드립니다!

8등 커피모트 (40명)

9등 농협쌀 10kg (50명)

10등 삼겹살 (50명)

행운상 하나로마트 이용권 (70명)

행운상2 플렉스 마트 이용권 (70명)

300부께 행운을 드립니다!

동양매직 식기세척기

신학순 사은품 증정!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

3월 1일~30일, 단 하루!

전북은행 / 롯데 / 씨티 카드 결제 고객께 증정!